

'충격'과 '격동'의 1988년 출판계

「북한원전」출간에서 '민주화 혁신운동'까지

1988년 출판계의 한 해는 그야말로 '격동'의 해'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만하다. 특히 올해는 국내 정치·사회 전반의 변화가 출판에도 큰 영향을 미친 해로 기록되어도 좋을 것이다. 우선 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사회 전반의 민주화·개방화 추세에 따른 '출판 자유의 확대'이다. 출판자유 확대는 당연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출판 禁域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그에 따라 더욱 다양해진 출판목록이 독서계에 신선한 충격과 함께 당혹감을 불러넣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출판계 자체의 체질개선 몸부림도 88년의 출판계를 특징짓는 이슈로 부각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언론계·학계·출판계 및 관련인사 1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88년 출판계 10대 뉴스'를 별항과 같이 선정, 발표했다. 다음에 '10대 뉴스'를 중심으로 올해 출판계 안팎의 주요 움직임을 살펴본다.

'북으로 간 문인' 선집·전집 쏟아져

정부는 지난 3월31일 납북작가 정지용·김기림을 해금한데 이어, 7월29일에 이르러 납·월북작가를 전면적으로 해금했다. 해방직후 또는 6.25를 전후한 납·월북문인은 모두 1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중 홍명희·이기영·한설야 등 5명을 제외한 전원이 해금된 것이다. 월북문인의 작품집은 이미 정부의 공식해금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출판되고 있었다. 따라서 문학사적인 의의는 제쳐두고라도, 정부의 해금조치는 이들 문인의

작품집 출판을 한법화 내지 공식적으로 허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계기로 납·월북작가의 작품집이 선집 또는 전집 형태로 활발히 출간되었는데, 현재까지 50여 작가, 100여종이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납·월북문인 중에서도 비중이 큰 정지용·김기림·백석·이용악·이태준 등의 경우는 여러 권의 선집과 함께 각각 개인 전집까지 나왔고, 이밖에 박태원·임화·김남천·오장환 등의 선집이 비교적 집중적으로 출간됐다. 합동 전집류로는 「북으로 간 작가선집」(전10권·을유문화사), 「한국해금문학전집」(전18권·삼성출판사) 등이 이미 선을 보였으며, 또 조명희·이기영·한설야 등 미해금작가와 임화·김남천을 망라한 「한국근현대문학총서」(풀빛) 등이 기획되고 있는 등, 이 분야의 출판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활기를 띠 전망이다. 이같은 출판붐은 중복출판에 따른 원작의 손상문제와 판본문제, 저작권문제 등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5공 비리에 관계된 책들이 다수 쏟아져 나온 것은 '구시대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궤를 같이하는, 자연스런 추세라 할 수 있다. 광우항쟁을 다룬 소설·시·리포·자료집·사진집을 비롯, 삼청교육대 체험기와 정치풍자 풍트집 등이 서점 점두에 큰 자리를 차지했다.

충격 준 '북한기행'과 '북한원전'

그동안 터부시됐던 일련의 '북한방문기'가 금기의 벽을 깨고 하반기에 쏟아져 나온 것도

출집 선정 '88 출판계 10대 뉴스'

- ① 월·납북작가 해금과 전집·선집 출판붐
- ② 출판사 수 급격증가
- ③ 출판계 민주화 혁신운동
- ④ 잡지 창간(복간) 붐
- ⑤ 북한기행문 / 북한원전 출간
- ⑥ 출판량 감소-14년만의 이변
- ⑦ 5공 비리책 출판붐
- ⑧ 서점 대형화 추세
- ⑨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 개정
- ⑩ 출판계 노사분규의 부상

올해의 큰 '사건'으로 기록된다. 재미학자 양은식·최익환 등의 「분단을 뛰어넘어」, 역시 재미학자인 양성철·박한식 등의 「북한기행」, 루이제 린지의 「또 하나의 조국」, 「상록수」의 작가 심훈의 세째아들 심재호의 「37년 걸린 길」, 고마테오 신부(재미)의 「아, 조국과 민족은 하나인데」, 재독학자 조명훈의 「북녘 일기」 등 일련의 북한방문기는 각기 관점이 나 분석틀이 다르고 더러는 편향된 시각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그런대로 '북한 이해'의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는 다르지만, 소련·중국(연변)·일본 등지의 韓人작가 작품이 집중적으로 소개된 것도 특기할 만하다. 채소 작가 아나톨리 김의 「사할린의 방랑자들」, 연변작가 김학철의 「격정시대」, 연변시인 김파의 「흰뚝」, 재일작가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과 「화산도」,

김달수의 「태백산맥」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소련·중공거주 교포들의 시선집 등도 선보여 독서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지난 10월을 전후해서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북한원전'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금서영역을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주로 역사·철학(사상) 분야의 책을 중심으로 북한의 1차 자료들을 거의 원전 그대로 옮겨내는 이들 출판물은, 극히 최근에 선보이기 시작한 북한문학작품집까지 합쳐 대충 20여종을 헤아린다. 이들 책의 일부가 서점가에서 젊은층의 독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리고 대형서점의 주간 베스트셀러에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고 시사적이다. 이들 '북한원전'은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계속 출판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 폭을 넓혀 나갈 전망이다.

평년작 밀도는 출판량·출판사만 늘어

올해의 출판계는 출판영역이 거의 무한대로 넓어진 만큼 다른 어느해보다도 풍성한 화제를 낳았는데, 그러나 정작 그해의 문화성장을 가능케 하는 지표가 되는 출판량에 있어서는 평년작을 밀도는 이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도서발행 총수는 신간(초판)만 따져 지난 79년에 1만종을 돌파한 이래 해마다 10% 이상씩의 성장률을 보여왔다. 그렇던 것이 올해에서는 11월말 현재 총 2만 345종(중판포함 3만5천473종)을 발행, 작년 같은 기간의 2만826종(중판포함 3만5천606종)에 비해 신간발행량이 2.3%(481종)나 감소된 것이다. 분야별로는 문학도서가 3천881종으로

책세상 서울특별시 중로구 교복동 10-6
☎ 732-1251~4

책세상의 책에 얽혀있는 독자엽서를
골골히 작성해 보내주시면
독서안내지(책세상소식) 등의 작은 선물을
택으로 보내드립니다.

책세상의 책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을

- 겨울·방학·여행, 그리고 책·세상



명상의 나무 아래
크리슈나무르티의
명상의 지혜
■ 크리슈나무르티/홍동선 옮김
'이 시대의 마지막 현자'라고 불리우는 크리슈나무르티의 명상집. 자기극복과 참된 자유의 길인 명상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 양장본/86면/정가 2,000원



아버지의 자리
프랑스
르노도상 수상작
■ 아니 에르노/홍상희 옮김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아니 에르노의 자전적 소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 그리고 계층간의 대립을 극복하는, 감동적이며 아름다운 문학적 성과.
● 신국판/214면/정가 2,500원



마르크스의 세계
칼 마르크스에서
고르바초프까지
■ 데이비드 맥렐런/강우란 옮김
마르크스 이후의 공산·사회주의에 대하여 역사적·체계적으로 조망한 책으로, 영국 BBC-TV에서 방송·출판되어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명저.
● 신국판/270면/정가 3,500원



전환기의 모색
류근일
정치평론집
■ 柳根一 지음
숨겨진 정치적 격변기인 8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위기상황의 연속적 전개를 조망한 정치평론집.
● 신국판/344면/정가 4,000원



사회 전반의 민주화·개방화 추세에 따른 '출판자유 확대'는 필연적으로 출판 금액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더욱 다양한 출판목적이 독서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주말 오후의 대형서점 풍경)

가장 많이 출판되었는데, 이는 작년 동기 (3천630종)에 비해 6.9%(251종)가 증가된 숫자이다.

문학도서의 이례적인 증가는 남·월북작가 작품집을 비롯, 재외한인작가 작품집, 5공관계 수기류 등이 집중적으로 출간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량면에서 작년수준을 밑도는 것은, 근래들어 납본을 이행치 않는 출판사가 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판량이 이렇게 '평년작 이하'로 나타난데 반해 출판사 수는 급증한 것도 기현상이다. 10월말 현재 전국의 출판사 수는 약 4,300개사로, 금년 들어서만 1,700여개사가 늘었다. 이는 월평균 170개, 하루 55개꼴로 신규출판사가 생겨났다는 계산이니 가히 세계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신규출판사들이 속출하면서 '책만들기'(편집·교정·장정 등)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뒷걸음친 형국이다. 어쨌든 이 많

은 출판사들이 내년쯤에는 처녀작 한두권쯤 내놓는다고 할 때, 89년의 출판계는 또다른 모습을 빚어낼지도 모른다.

출판사들, 사회과학전문 잡지 등 창간

출판사 등록과 함께 잡지 등록도 자유화하면서 올들어 600여종의 월간·계간지 등이 새로 창간됐다. 그중에도 70년대 문학의 양대지주였던 계간 「창작과 비평」(창작과비평사), 「문학과 사회」(문학과지성사·개제)와 80년대 초반 무크지로 출발했던 「실천문학」(실천문학사)이 복간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밖에도 출판사들이 대거 잡지발행에 참여, 잡지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와 사상」(월간·한길사)을 비롯해 「오늘의 소설」(반년간·현암사), 「한국사 시민강좌」(반년간·일조각), 「불교문학」(계간·밀알), 「현대시세계」(계간·청하), 「흙토피아」(월간·계몽사) 등이 이미 나왔는가 하면 「사회비평」

(반년간·나남), 「경제와 사회」(계간·까치), 「현대비평」(계간·청하), 「여성문학」(계간·전예원) 등이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단행본 출판으로 꾸준히 역량을 다져온 출판사들이 사회과학 혹은 문학분야의 전문지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여러모로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서점이 점차 대형화하고 있는 것도 발전적인 변화로 꼽힌다. 작년 12월에 한가람문고(250평)가 문을 연데 이어 올들어 뉴코아문고(250평), 광복문고(부산·200평), 서울문고(300평), 교민문고(150평), 영등포서적(250평), 세종문고(300평) 등 대형서점들이 잇달아 문을 열었으며, 기존의 교보문고(1,520평), 을지서적(800평), 홍익서적(140평), 동문서점(대전·150평) 등이 매장을 확장했다. 11월말 현재 전국의 서점수는 4,681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이 10여평 규모의 영세한 서점들이며, 숫적으로도 일본의 5분의 1에 못미치고 있다.


한편, 오랫동안 개정여부로 논란을 빚어왔던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이 개정되어 지난 1월14일자로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대체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개정된 규정이 일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출판물이므로 출판사로서는 기존 지형을 뜯어고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새 규정은 89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체질개선 진동... '노사분규'로 몸살도

이밖에, 그동안 노조 무풍지대로 여겨져 왔

던 출판계에도 작금년의 민주화 열기를 타고 '노조 바람'이 불어닥쳐 일부 출판사와 대형서점들이 몸살을 앓았다. 특히 '일월서각'이 노사분규 끝에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은 쇼킹한 사건이었고, 월간 「엔터프라이즈」발행사인 (주)CPI의 사태는 매스컴에까지 오르내렸다. 현재 '민주출판연론노조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출판사·서점 노조는 시사영어사·웅진출판사·세광음악출판사·창인사·삼성당·산업도서출판사와 교보문고·종로서적·신촌문고·한국출판판매 등이다.

한때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출판계의 민주화 혁신운동은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체질개선의 몸부림으로 평가된다. 출협 집행부의 거취문제에서 발단된 이같은 몸부림은 단행본 발행사들을 주축으로 한 '출판계 혁신을 위한 출판인 모임'에 의해 주도되었고 급기야는 일부 집행부 및 이사들의 출협이탈로까지 번졌다. 이밖에 국내 출판인들의 첫 중공방문, 출협의 「국제일러스트레이션 워크샵」, '혁신모임'의 「교육과 출판」토론회,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한출협)가 학술단체들과 제휴해 개최한 「학문·사상·출판의 자유를 위한 공청회」 등도 올해의 기억할 만한 이벤트이다. 또 최근 김종수씨(한울 대표) 등 몇몇 출판인이 구속된데 대해 '혁신 모임'·한출협 등이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데 이어 출협에서도 석방을 진정한 것은, 출판인의 인신구속 문제에 대해 출판계 전체가 인식을 같이하고 더불어 대응하는 몸짓을 보이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승우 주간



국내 최초의 전문편집인력양성!

편집디자인

출판

- 단행본 ○ 전집류 ○ 잡지
- 교양도서 ○ 참고서 ○ 사전류
- 교과서

신문

- 일간신문 ○ 주간신문 ○ 월간신문

잡지

- 교양지 ○ 전문지 ○ 종합잡지
- 정기간행물 ○ 사보

● 취업보도실 : 671-8317

미올앤스 디자인학원

☎ 672-1841, 672-1842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문래동 방향 150m